

# 현대시의 이해

---

공원 벤치에 앉아 크림빵 먹는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다가와  
단팥빵 하나 건네주는 풍경

공원벤치에 앉은 두 남자가 빵 먹는 풍경을  
개가 침 흘리며 바라보는 풍경  
말없이

세계 망하고  
잠자다 깬 사람 다시 자도 되고  
듣기 싫은 음악 안 들어도 되고  
그럴 때까지

인생이 섬망이라 여겼던 사람이 섬망에서 해방될 때까지  
영혼 없어서 영혼 없는 말도 없고  
말 없어서 없는 영혼도 없을 때까지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까지  
인류의 무덤이 기념품 같을 때까지

말없이 두 남자가 크림단팥빵을 먹고 있고  
개의 영혼이 침 흘리며 이탈하고 있다

송승언, <기계적 평화>

# 현대사회의 일상성

## 일상성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도시라는 장소의 특수성

- 반복의 권태

그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험

# 시의 일상성

---

#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시 - **거시담론**의 영역



민족의 슬픔  
조국 광복

노동현실  
극복의지



좌) 1984년 초판본 표지 | 풀빛출판사 우) 2014년 개정판 표지 | 느린걸음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좌석이 없는 좌석버스를 타고 간다

삼표연탄 이름만 남아 있는 자리

백미러 같은 낮달 떠 있다

‘이번 정류장은 수색극장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름다리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건너

검문소 앞에서 검문 당하는 청춘

이등병의 배지를 달고 있다

물빛처럼 푸른 군복

수색엔 온통 일렁이는 것들만 살고 있다

‘..... 다음 정류장은 항공대학교입니다’

빨강 에나멜 구두를 신고

파랑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던,

삼표연탄보다 활활 타오르던 시절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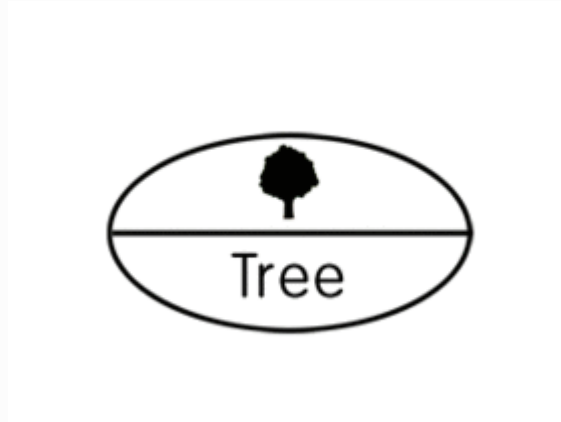
좌석이 없는 생을 타고 간다

꽃밭은 없고 이름만 남아 있는

화전(花田) 간다

안현미, <화전 간다>

기표(記標, signifiant)와 기의(記意, signifié )





높은 천장과 깨끗한 조도를 가진 우주.

건담은 평화를 사랑한다. 거대한 서사의 시작은 늘 명징한 평화.

휴먼은 우주의 항로를 돈다. 조화롭게 진열된 별들을 우주선에 담는다. 무수한 별들의 쓰임을 모두 알 수는 없는 일. 그들은 혼돈을 즐긴다. 휴먼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술한 은하들의 노선이 입맛대로 흐트러진다. 별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건담.

덜 큰 휴먼을 우주선에 태우고,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신성한 별을 담는 진정한 야만성. 전범국의 후예의 무심한 표정은 참을 수 없이 밥맛이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나선형의 행복에 건담은 끼어들 자격이 없다. 우주선에 두고 간 내밀한 기록을 지우는 건담.

안드로메다 성운의 지하자원에서는 늘 고소한 냄새가 난다. 우주의 복판으로 성난 이쑤시개처럼 휴먼들은 달려든다. 우주는 영영 고갈되지 않는 자원의 보고이고 천장은 높고 조도는 깨끗하다. 권유하기에 쉬운 크기를 개발하기 위해 골몰한다. 너무 크거나 작은 자원은 분쟁을 일으키므로, 잘 드는 가위를 집는 건담.

영원의 구멍을 향해 휴먼은 우주선을 몬다. 바코드-홀에서 녹색 광선검을 투과하면 별들의 신비는 해체된다. 행성의 표면이 굽히는 소리가 사납다. 휴먼, 3개월로 굽을 건가. 휴먼, 한 번에 할 건가. 휴먼, 비밀을 쌓을 텐가. 휴먼, 적립할 다른 비밀은 없는가. 빠른 손놀림의 건담.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에서 봉지에 별을 담는 정도는 스스로 해야 할 일. 썩지 않는 물질이 허공을 떠돈다. 봉지가 무겁다. 건담은 거대한 평화에 눌러 종아리가 붓고 발바닥이 딱딱하다. 어쨌든,

우주의 서사에서  
건담은 늘  
서 있으니까.



# 참고문헌

---

기형도,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서효인, 《소년파르티잔 행동 지침》, 민음사, 2010.

송승언, 《사랑과 교육》, 민음사, 2019.

안현미, <화전 간다>, 《문학동네》 9권 1호, 2002.

유성호, 《한국 시의 과잉과 결핍》, 역락, 2005.

윤의섭, <시에서의 일상성과 현대성>, 《새로 쓴 시론》, 소명출판, 2019.